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곽지원 연구원 · kjw0818@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팀

1.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3. 소비지출지수
4. 순자산지수

* 각 지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www.sdi.re.kr)에서 발간하는 「정책리포트」 111호(3월 19일)를 기초로 2012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전망지수 결과를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2008년 4/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까지의 SDI 소비자 체감경기를 각기 다른 추이를 보이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8년 3/4분기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서울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지표를 산출하여 서울시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소비자 체감경기 지수는 서울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며,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지출지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구입태도지수를 통합한 것으로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지수로 볼 수 있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를 중심으로 서울의 경기는 상승기(2008년 4/4분기 ~ 2009년 3/4분기), 정체기(2009년 3/4분기 ~ 2010년 4/4분기), 하락기(2010년 4/4분기 ~ 2012년 1/4분기)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번 생생리포트에서는 2008년 4/4분기부터 최근까지 소비자 체감지수를 통해 서울의 경기 국면을 진단하고, 권역별로 이러한 경기 국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4개 지표, 5개 권역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소비자 체감경기조사 5개 권역

권역	해당 자치구	가구수(1,000)
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50
서북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16
서남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05
동남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97
동북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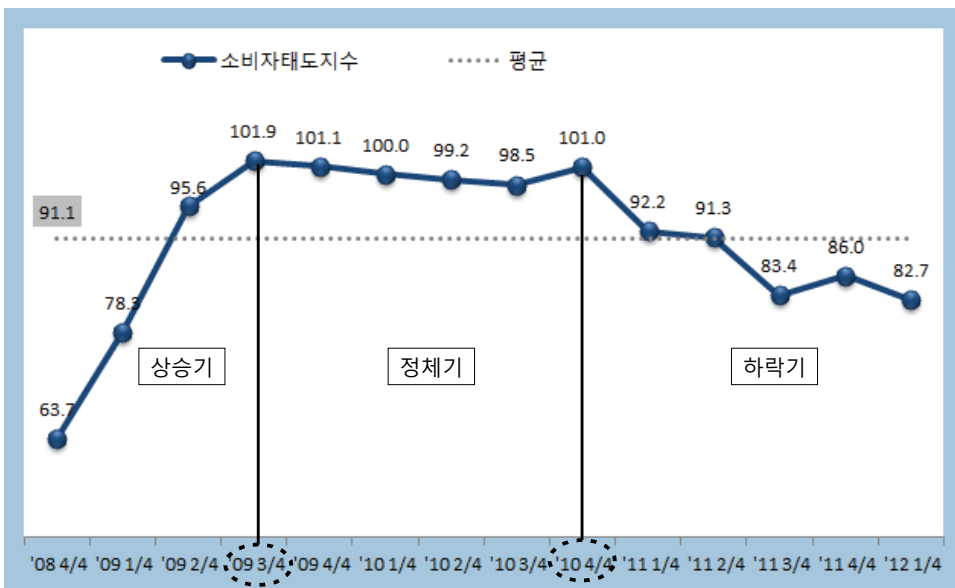
주 : 권역구분의 기준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의거.

가구수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따라 25개 자치구별로 표본비율을 할당함.

1. 소비자태도지수

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15분기 동안 평균 91.1을 기록, 최근 3분기 연속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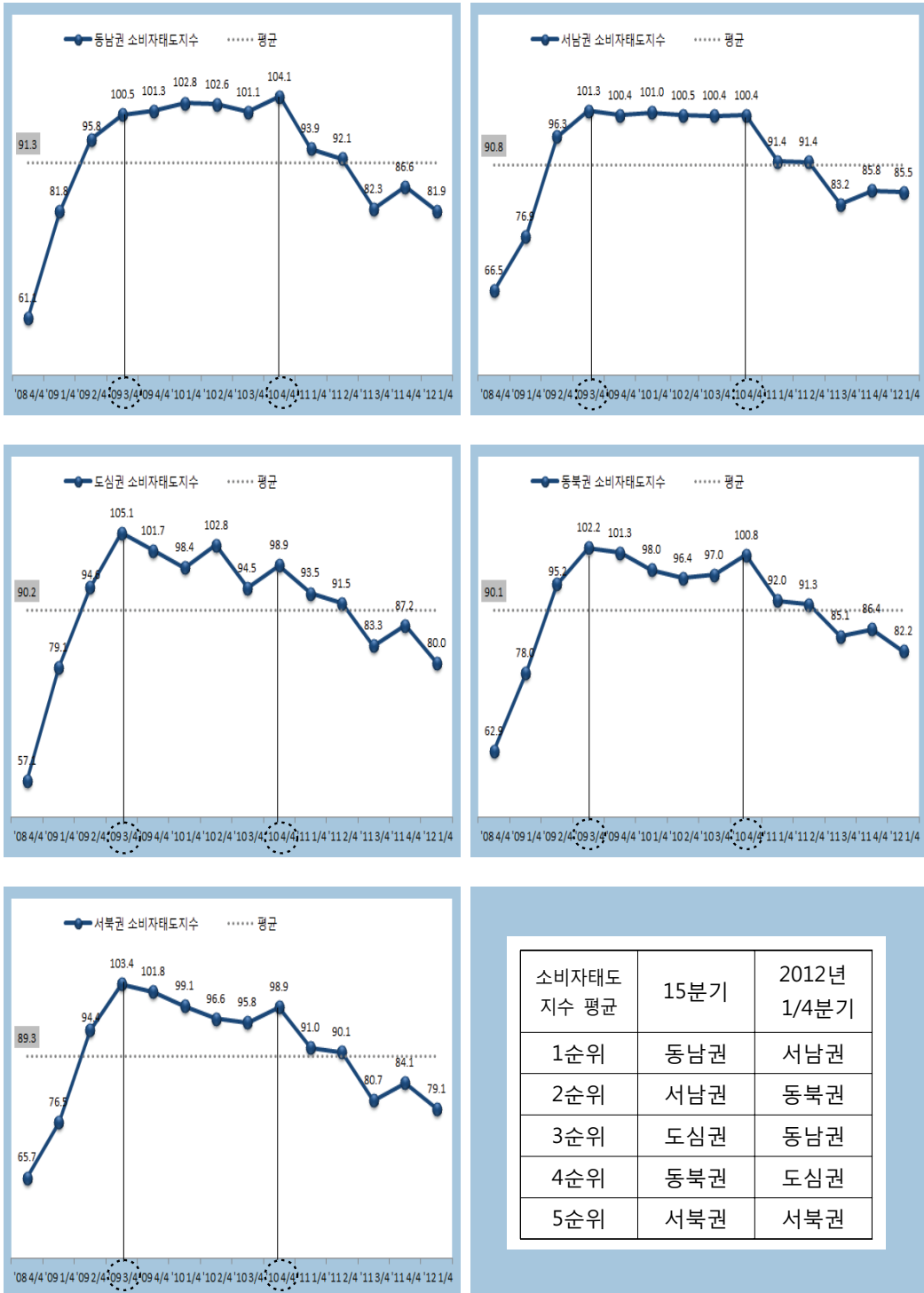
-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3/4분기부터 최근 3분기 동안 평균을 하회하며 하락기에 접어들
 - 상승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
 - 정체기는 평균 100.3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현재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리스와 서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성장이 정체
 - 하락기는 중동사태와 이란사태로 인한 유가상승과 물가폭등으로 불안한 정세를 보이며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
- 2012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82.7로 2009년 이후 경기 저점으로 판단
 - 국내외 경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불안 심리와 고용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는 당분간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1]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권역별 「소비자태도지수」는 지수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9년 3/4분기부터 하향세

- 동남권과 서남권의 「소비자태도지수」 평균은 각각 91.3과 90.8을 기록하며 강남권의 체감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판단
 - 동남권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최근 3분기 평균을 하회하며 2012년 1/4분기 현재 81.9로 다섯 권역 중 중간 값을 기록
 - 반면 서남권의 현재 「소비자태도지수」는 85.5로 다섯 권역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 도심권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평균 90.2로 변동이 가장 큰 성향을 보임
 - 2008년 4/4분기 다섯 권역 중 가장 낮은 57.1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 3/4분기 최고점 105.1을 기록
 - 그러나 2009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1/4분기 현재 80.0을 기록
- 동북권 「소비자태도지수」 평균은 90.1로 서북권의 평균 89.3보다 높지만, 그래프 추이는 비슷
 - 동북권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정체기에 2010년 4/4분기까지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그렸으나 최근 1년 동안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 1/4분기 현재 82.2를 기록
 - 서북권의 「소비자태도지수」도 마찬가지로 2010년 3/4분기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2년 1/4분기 현재는 다섯 지역 중 가장 낮은 값인 79.1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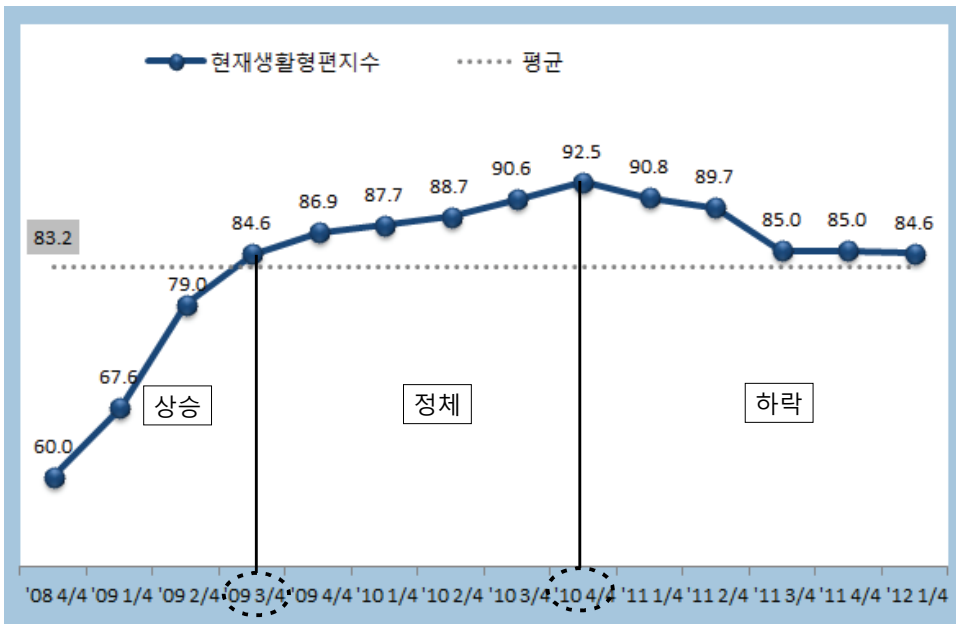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생활형편지수」는 15분기 동안 평균 83.2를 기록, 최근 3분기 연속 평균 수준에서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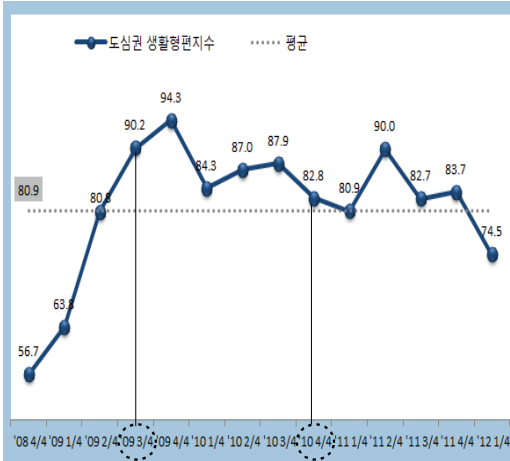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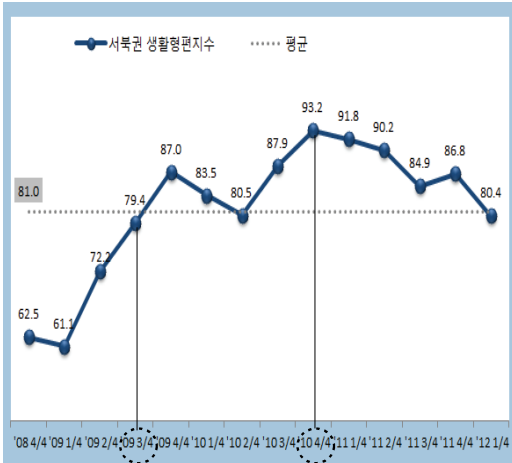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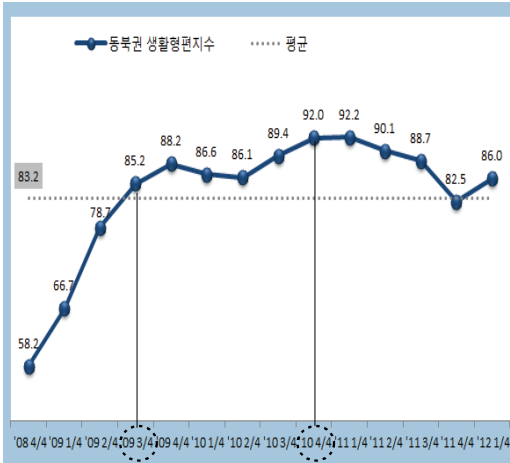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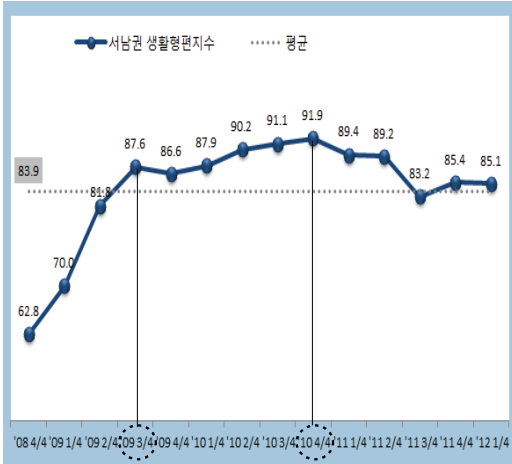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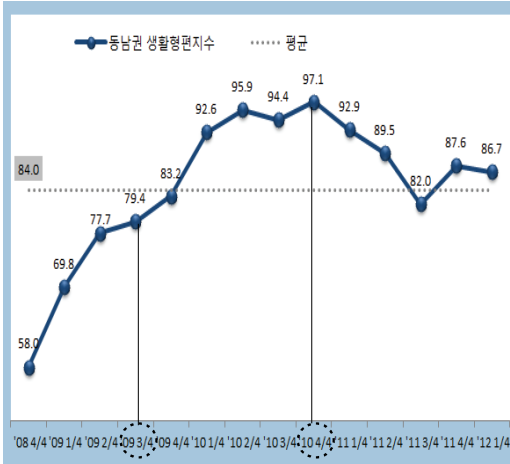
- 「생활형편지수」는 2011년 3/4분기 이후로는 3분기 평균 84.7로 정체
 - 상승기 구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생활형편 회복
 - 정체기 구간은 2010년 4/4분기 92.5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하락기 구간은 2011년 서민경제 불안정과 함께 생활형편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최근 3분기는 정체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84.6을 기록
 - 2011년 3/4분기 이후로는 생활형편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음



[그림 3]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대체적으로 하향세

- 동남권과 서남권의 「생활형편지수」는 평균 84.0과 83.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생활형편을 나타냄
 - 동남권은 2008년 4/4분기 58.0에서 2년 동안 29.1p 상승하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 현재 86.7로 다섯 지역 중 가장 나은 형편을 보임
 - 서남권은 동남권에 비해 완만한 변화를 그리고 있으며, 2011년 3/4분기 83.2로 평균 이하를 하회하다가 2012년 1/4분기 현재 85.1로 소폭 상승
- 동북권 「생활형편지수」는 평균 83.2로 전체 평균과 동일하나 한 분기씩 뒤처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위 두 권역과는 다르게 2009년 4/4분기부터 성장세가 꺾이고 2011년 4/4분기에 평균 이하의 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는 86.0으로 회복
- 서북권과 도심권의 「생활형편지수」는 평균 81.0과 80.9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임
 - 서북권은 네 권역과는 달리 15분기 동안 최저점이 2009년 1/4분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에 최근 3년 동안의 최저점인 80.4를 기록
 - 도심권은 네 권역과는 달리 2009년 4/4분기에서 94.3으로 자체 최고점을 기록하고 2012년 1/4분기 현재 2009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평균을 하회하는 74.5의 최저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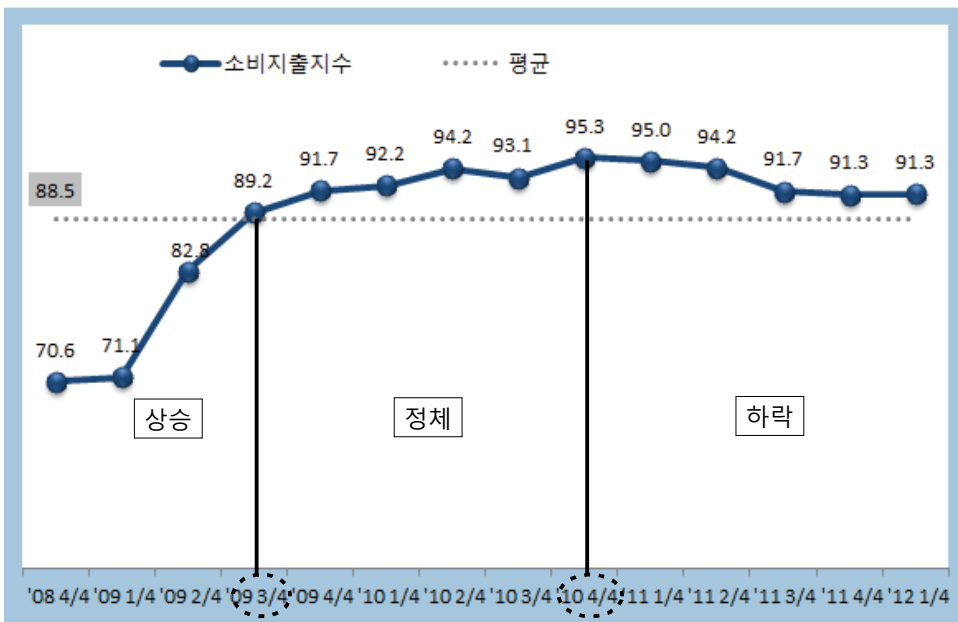
생활형편 지수 평균	15분기	2012년 1/4분기
1순위	동남권	동남권
2순위	서남권	동북권
3순위	동북권	서남권
4순위	서북권	서북권
5순위	도심권	도심권

[그림 4]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3. 소비지출지수

현재 소비 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지출지수」는 15분기 동안 평균 88.5를 기록, 최근 3분기 연속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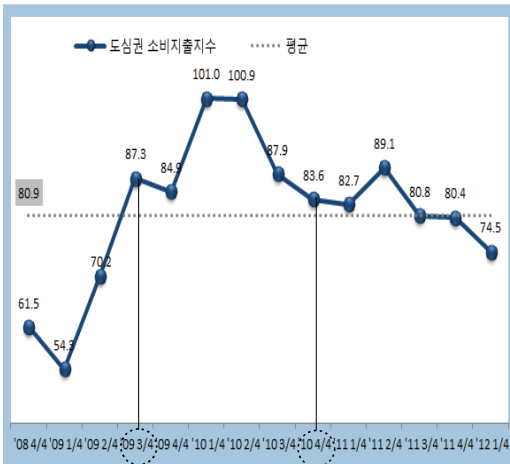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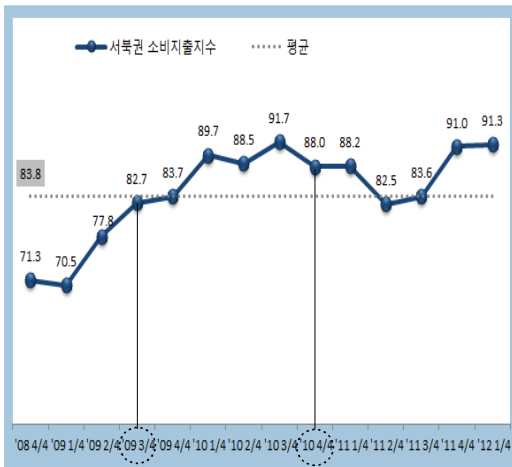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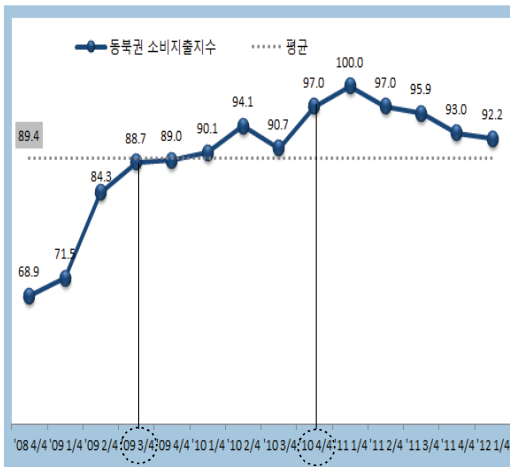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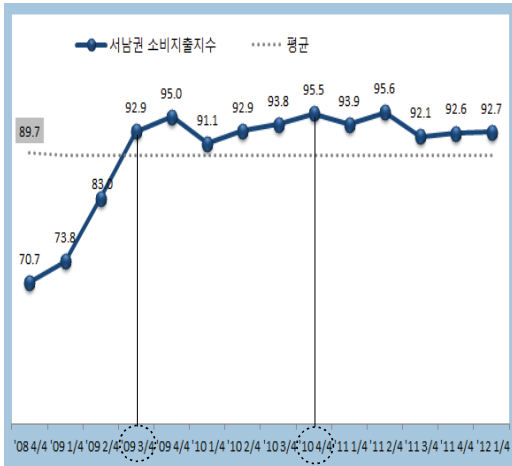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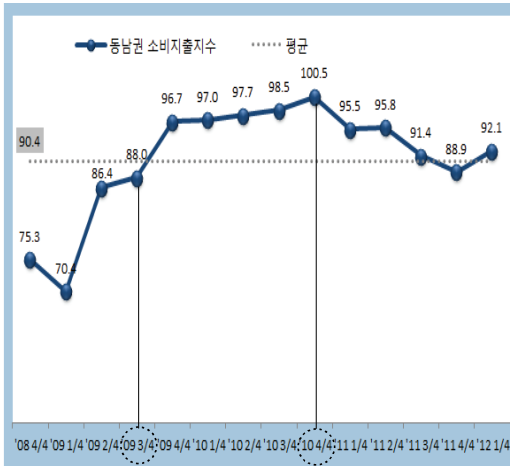
- 「소비지출지수」는 2011년 3/4분기부터 3분기 평균 91.4로 정체
 - 상승기 구간은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자들의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
 - 정체기 구간은 2010년 4/4분기 95.3까지 완만하게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하락기 구간은 2011년 서민경제 불안정과 함께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3분기 동안은 정체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현재 서울의 「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와 보합한 91.3 기록
 - 물가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여 소비 수준을 절제하며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임



[그림 5]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권역별 「소비지출지수」는 강남(동남권, 서남권)과 동북권은 비슷한 값을 보이는 반면 서북권과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에 차이가 존재

- 동남권과 서남권, 동북권의 「소비지출지수」 평균은 각각 90.4와 89.7, 89.4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 수준을 나타냄
 - 동남권의 「소비지출지수」는 2009년 4/4분기에 처음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 현재는 92.1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상태
 - 서남권 「소비지출지수」는 전체 그래프 패턴과 가장 유사하며 2012년 1/4분기 현재는 92.7로 다섯 권역 중 가장 높은 소비지출을 보임
 - 동북권 「소비지출지수」는 다섯 권역 중 가장 늦게 평균 상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는 평균 이상의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에는 92.2로 하락
- 서북권 「소비지출지수」는 평균 83.8로 그래프가 나머지 네 지역과 조금 다른 추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음
 - 2012년 1/4분기 현재 91.3으로 전체 「소비지출지수」와 동일한 값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
- 도심권 「소비지출지수」는 평균 80.9로 그래프의 변동 폭이 가장 큼
 - 2009년 1/4분기 최저점인 54.3을 기록하나 2010년 1/4분기에 101.0을 기록하며 4분기 만에 급격히 상승
 - 2012년 1/4분기 현재 74.5로 전분기 대비 5.9p 하락하여 다섯 권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비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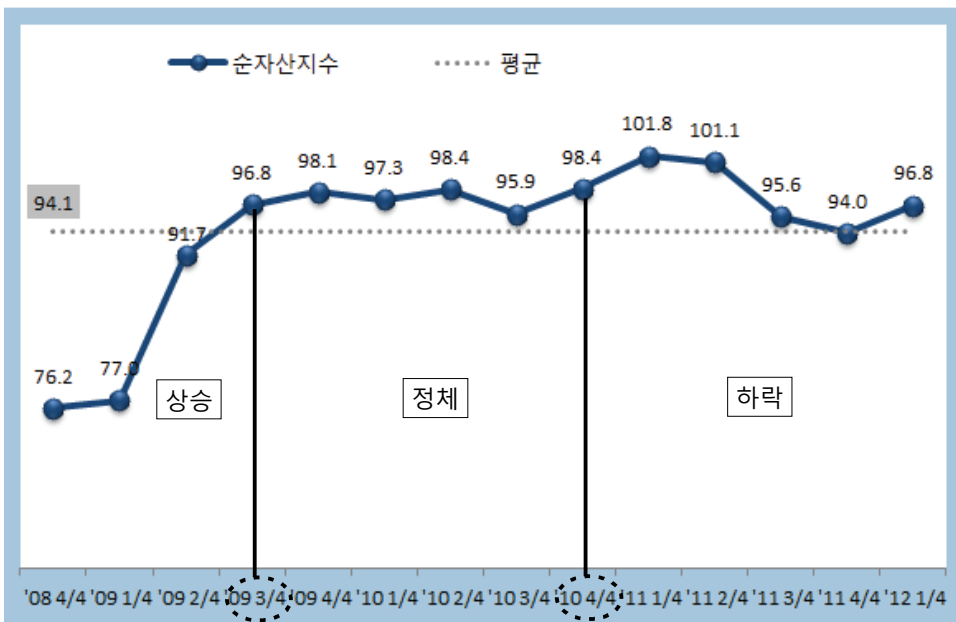
소비지출 지수 평균	15분기	2012년 1/4분기
1순위	동남권	서남권
2순위	서남권	동북권
3순위	동북권	동남권
4순위	서북권	서북권
5순위	도심권	도심권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소비지출지수

4. 순자산지수

현재 자산수준을 나타내는 「순자산지수」는 15분기 동안 평균 94.1을 기록, 최근 3분기는 평균 수준에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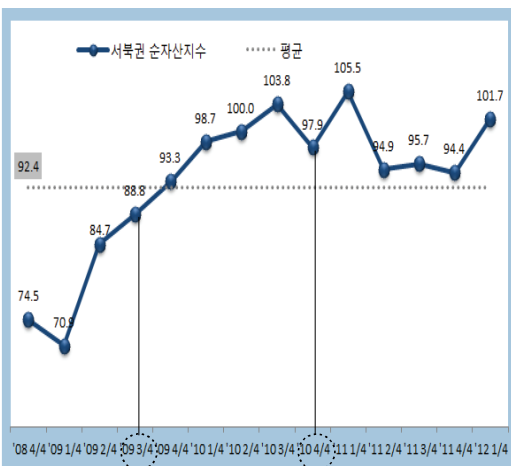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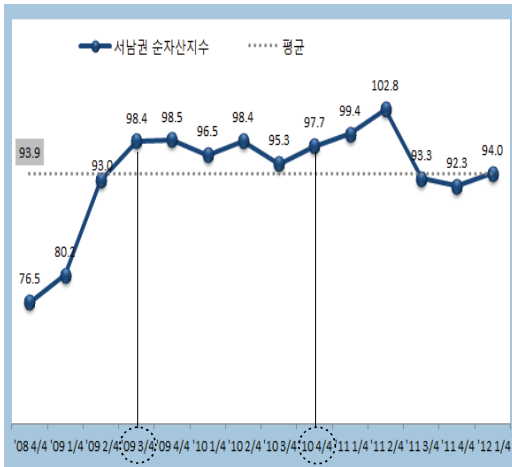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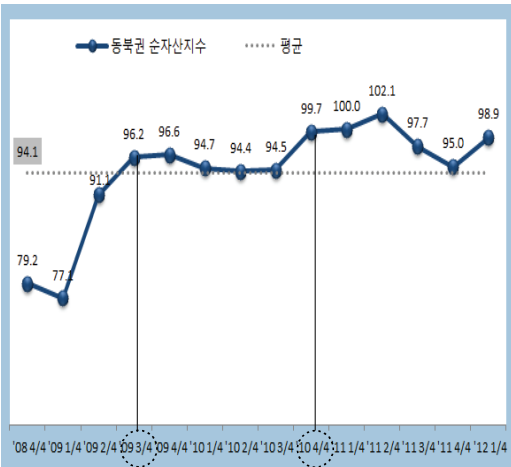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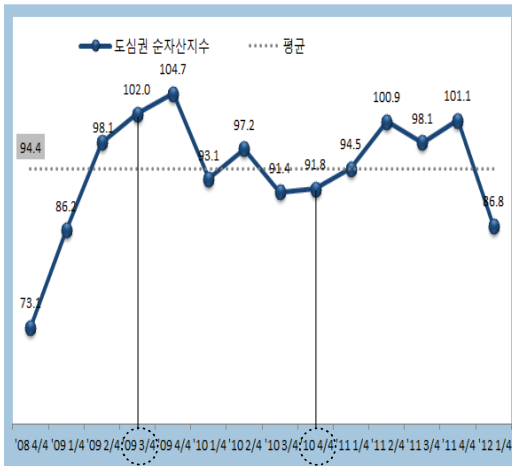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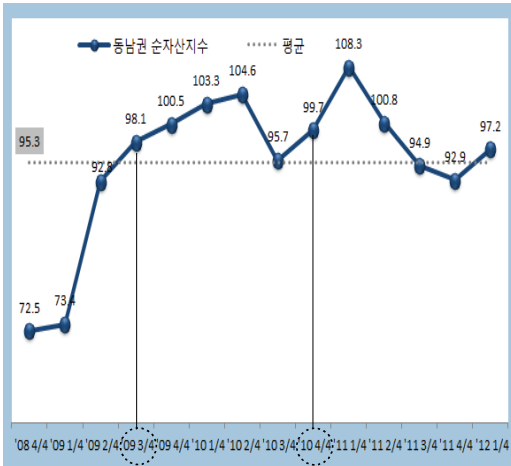
- 「순자산지수」는 2011년 3/4분기부터 3분기 평균 95.5 에 머무름
 - 상승기 구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순자산 증가
 - 정체기 구간은 2011년 1/4분기 자체 최고점을 찍은 101.8까지 전반적으로 자산이 증가 추세
 - 하락기 구간은 2011년 서민경제 불안정과 함께 하락 추세이나 최근 3분기는 평균 95.5로 소폭 변동
- 2012년 1/4분기 현재 「순자산지수」는 전분기 대비 2.8p 상승한 96.8을 기록함
 - 「순자산지수」의 증가는 주가 상승과 소득대비 부채비율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7] 서울의 순자산지수

「순자산지수」는 권역별로 다른 추이를 보이고 강동(동남권, 동북권)과 강서(서남권, 서북권)를 중심으로 차이가 존재

- 동남권과 도심권, 동북권의 「순자산지수」 평균은 각각 95.3과 94.4, 94.1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서쪽 권역보다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임
 - 동남권의 「순자산지수」는 2011년 1/4분기 108.3의 최고 자산 지수를 기록하고, 2012년 1/4분기 현재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하여 97.2로 회복
 - 도심권의 「순자산지수」는 2009년 4/4분기에 자체 최고 104.7까지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14.3p 하락하여 2012년 1/4분기 86.8로 다섯 권역 중 가장 낮은 값을 기록
 - 동북권의 「순자산지수」는 최근 3년간 완만하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 현재 98.9로 상승
- 서남권과 서북권의 「순자산지수」 평균은 각각 93.9와 92.4를 기록하고 있고, 서남권은 전체 그래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서북권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 서남권의 「순자산지수」는 2011년 2/4분기에서 102.8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3분기 동안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2012년 1/4분기 94.0으로 전분기 대비 1.7p 상승
 - 서북권의 「순자산지수」는 2009년 1/4분기에 최저점 70.3과 2011년 1/4분기 최고점 105.5를 기록하고 하락한 이후, 2012년 1/4분기 현재 101.7로 상승



순자산 지수 평균	15분기	2012년 1/4분기
1순위	동남권	서북권
2순위	도심권	동북권
3순위	동북권	동남권
4순위	서남권	서남권
5순위	서북권	도심권

[그림 8] 서울의 권역별 순자산지수